



돼지콜레라 백신 했는데도 또 발생 '불안...'

- 돼지콜레라 전국 24개 시군 58개 농장서 발생
- '돼지콜레라 인체 무해' 불구 돈육 소비 크게 위축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시에도 불구하고 돼지콜레라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 양돈농가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4월 15일 신고가 들어갔던 경기 포천, 전북 익산의 3농가가 추가로 돼지콜레라로 확진되면서 4월 19일 현재 돼지콜레라는 제주와 충북을 제외한 전국 6개도 24개 시군, 58개 농장에서 발생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13농가, 충남 6농가, 전북 15농가, 전남 1농가, 경북 12농가, 경남 11농가이며, 총 살처분 두수는 9만2천912두에 달하고 있다.

약 3백만두 분의 돼지콜레라 예방약을 비축하고 있던 농림부는 긴급 공급체계를 갖추고, 18일 현재 1천111만5천두분의 1차 접종용 백신을 공급하였으며, 2차 접종용 백신도 232만2천두분이 공급된 상태이다. 또 1만9천132농가 1천29만9천두가 3월 19일~4월 12일 사이

1차 예방접종이 이미 실시하였으며, 4월 12일 이후부터 18일 현재까지 3천487농가 252만7천두(24.5%)가 2차 접종이 끝났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4월 4일 양돈농가 생계 및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500두 이상 살처분 농가에 생계비를 최고 1천만원 지원키로 하는 등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중이며, 4월 15일 살처분농가의 빠른 돼지 재입식을 위해 발생농장 재입식 허용기간을 기존 80일에서 40일로 단축시키고, 가축입식자금을 성축기준 16만원씩 연리 3%로 지원키로 했다.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재입식 허용 기간 40일 단축

- 성돈 두당 16만원 등 가축입식자금 지원
- 이동제한지역내 과체중 돼지 kg당 1,560원 지원

농림부는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살처분된 농가의 돼지 재입식기간을 40일 단축하고, 살처분농가의 재생산을 통한 양축활동의 정상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살처분 농가에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4월15일, 최근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살처분된 농장의 돼지 재입식 기간을 당

초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사육금지기간 40일, 시험사육기간 40일 등 총 8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험사육기간 40일을 단축, 살처분후 40일이 경과하면 돼지 입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는 살처분농가가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돼지를 재입식할 경우 살처분두수에 성장단계별 두당 지원 기준액 한도내에서 성축은 두당 160천원, 육성축은 110천원, 자축은 60천원을 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의 조건으로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와 함께 3월18일 이후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사육 중인 돼지의 출하 지연에 따라 체중증가에 의한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체중 돼지 농가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 농가는 이동제한지역내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출하한 농가와 상원축산 분양 및 재분양 농가중 이동제한 조치된 농가로 시·군별 1차 예방접종 완료일로부터 7일 경과 후부터 10일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한 과체중(생체 120kg~140kg) 돼지에 한하여 지원된다. 지원액은 과체중 생체 1kg당 1,560원으로 탕박 도축시 지육중량은 90kg 이상~105kg 이하(지육율 75%), 박피 도축시 지육중량 80kg 이상~93kg 이하(지육율 66.6%)를 기준으로 지급키로 했다.

지급액 실례를 보면 탕박 지육중량이 95.4kg일 경우 지육중량을 생체로 환산할 경우 127.2kg이 된다. 이는 120kg에 비해 7.2kg이 초과된다. 따라서 초과체중에 1kg당 1,560원을 곱하면 11,232원이 되며, 이는 기금보조(5,615원)와 지방비(5,615원)로 각각 50%씩 지급된다.

백신접종 완료후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 정책' 수정

백신접종 완료후부터는 전 두수 살처분에서 감염축과 감염의심축 등을 선별해 살처분되는 등 돼지콜레라 방역정책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최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마친곳에서 돼지콜레라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예방약은 접종 후 7~15일 정도 지나야 질병을 막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긴다"며, "따라서 접종 전 또는 접종 직후 병원체가 돼지에 침입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당 돼지에 돼지콜레라가 발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로 인해 현 단계에서는 100% 면역이 어려워 백신을 한 농장에 대하여도 살처분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나,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부터는 감염축 및 감염 의심축을 살처분 하는 한편, 가축방역관의 판단하에 오염정도에 따라 돈방, 돈사 단위로 살처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다.

백신접종 지역서 HC 발생시 위험지역만 이동제한

- 농림부, 추가 돼지콜레라 방역 지침 마련

앞으로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한 지역(이동제한 10km 이내)에서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동제한지역은 위험지역으로 줄어든다.

농림부는 4월1일 돼지콜레라 이동제한지역에 대한 추가 방역지침을 발표하고, 예방접종

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면 기존 3km 이내는 위험지역으로, 10km 이내는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이동제한지역으로 묶던 것을 위험지역에서만 이동제한을 하기로 했다.

이동제한 기간은 1차 접종을 완료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지역은 추가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 이후 7일간 추가로 이동제한을 시키고,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역은 추가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 이후 잔여기간에 3일을 추가해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돼지의 도축장 출하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날부터 7일을 경과한 돼지는 위험지역과 경계지역과 상관없이 추가 발생농장 살처분 다음 날부터 지정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기로 했다.

5월말까지 농가부채경감대책 마련 추진

- 농림부, 농업인부채대책위원회 구성·운영키로

농림부는 4월4일 농업인들의 부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 단체, 학계,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농업인부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김건태 회장을 비롯해 각계대표 17명으로 구성된 농업인부채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농가부채 실태조사를 거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농가부채경감대책을 5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는 농업인들에게 지원된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및 장기분할상환,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환기간 연장, 농업인 경영회생프로그램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퓨리나코리아, 한시적 사료값 인하

퓨리나코리아는 최근 장기간 불황으로 양돈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돈농가들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료값 인하를 단행했다.

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회장 김기용)는 바로돈 첨가사료 등 6개 동사 제품 가격을 3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M/T당 6000원을 할인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동식물방역청 설치 추진



한영섭 직무대행

동식물 방역 및 검역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동식물 방역청'이 정부 조직내 설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3월 21일 최근 돼지콜레라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조직내 동식물 방역 및 검역업무를 전담하는 동식물 방역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돈조합연합회, 한영섭 부회장 직대 체제

한국양돈협동조합연합회가 한영섭부회장(부산경남양돈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양돈조합연합회는 지난 15일로 안덕수 회장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신임 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정관에 의해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대행으로 운영키로 했다.

양돈조합연합회는 지난 2월 11일까지 1차, 14일까지 2차로 회장 입후보 등록을 받았으나 입후보자가 없어 지난 2월 18일 이사회에서 신입 회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을 추진해 왔으나 회장을 선출하지 못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경기도, HC 발생 경계지역 이동 제한 해제

최근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해 경기도지역 돼지콜레라 발생 경계지역의 이동 제한이 4월2일과 3일 각각 해제됐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화성, 평택, 김포, 이천 등 돼지콜레라 발생 경계지역에 대한 1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완료 7일 후 농가에 대해 임상 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무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이로써 평택은 4월2일, 화성과 김포, 이천 지역은 4월3일 각각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돼지콜레라 속 사육두수 현상유지

- 모돈두수 증가로 향후 사육두수 증가될 듯

2003년 3월 1일 현재 돼지 사육두수는 902만7천두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돈두수는 98만5천두로 2.6% 증가를 보여 향후 사육두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농산품질관리원이 지난 4월 3일 발표한 가축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1일 현재 돼지 사육두수는 902만7천두로 전분기와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전년 동기 871만

9천두에 비해 3.5%(30만8천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모돈두수는 98만5천두로 전분기 96만두보다 2.6%(2만5천두)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 95만8천두보다는 2.5%(2만7천두) 증가한 것을 나타냈다.

한편 품질관리원은 이번 3월 가축통계를 지난해까지 조사되었던 구표본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신표본 방식으로 실시했다.

3월 통계치를 구표본치로 적용할 경우 총 사육두수는 897만4천두로 지난 분기와 같은 수준이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통계자료 참조)

HC백신 5월 2일까지 10,865천두 분 추가공급

농림부는 지난 4월 12일부터 돼지콜레라 2차 예방접종분 10,865천두분의 백신을 추가 공급을 시작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3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5,035천두분을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발생 종돈장에서 분양받은 농가, 종돈장과 AI센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4월 7일부터 12일까지 아직 공급하지 못한 1차 예방접종분 5,829천두분을 순차적으로 공급했다.

또한 농림부는 2차 예방접종분도 12일 1,455천두분을 시작으로 14일 576천두분, 15일 598천두분, 16일 568천두분, 18일 287천두분을 각각 공급했다.

이어 24일에는 1,000천두분, 25일 570천두분, 28일 3,570천두분, 30일 1,170천두분, 5월 1일 600천두분, 5월 2일 471천두분을 각각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로써 5월 2일까지 총 21,729천두분의 백신 공급이 완료된다.

농림부 차관보에 김주수씨 임명



김주수 차관보

농림부는 4월 8일자로 김주수 전 대통령비서실 농림해양수산비서관을 차관보로 임명했다. 신임 김주수 차관보는 경북 의성출신으로

행시 18회로 공보관과 농산물유통국장, 축산국장, 농업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에 소만호씨



소만호 기획관리실장

농림부는 4월 8일자로 소만호 현 농업정책국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발령했다. 전북 남원 출신인 소만호 기획

관리실장은 행시 18회로 축산국장, 농산물유통국장, 농업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HC 예방접종시 세심한 주의 기울여야”

- 농림부, HC 예방접종 사후관리 철저 당부

농림부는 최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돼지 전 두수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됨에 예방접종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사바늘이 근육내 잔존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단체 등으로 하여금 농가 지도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부는 “예방주사시 부주의로 인해 주사바늘이 근육내 잔존할 경우 소비자의 불신으로 인해 돼지고기 소비가 위축되어 양돈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으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켜 어려움에 놓여있는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이 빠른 시일내 회복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는 관내 도축장, 가공장 영업자에 대해서는 금속탐지기 등을 적극 활용해 돼지고기 유통시 주사바늘이 발견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작년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17kg

지난해에는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17kg의 돼지고기를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우리 나라 돼지고기 소비량은 모두 81만400톤으로 비가공 식용중 삼겹살이 16만2,410톤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품 가운데서는 뒷다리가 19만4,325톤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었다.

YTN, “황시질환, 돼지고기가 효과” 보도

해마다 봄만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는 철과 규소, 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결막염과 각막염 등 눈병을 유발하고, 호흡기로 들어가면 천식이나 기관지염 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 같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한방에서는 해독작용을 하는 돼지고기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중금속 등의 공해물질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해독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운전자들 뿐만 아니라 도심의 공해속에서 살고 있는 일반인들이 즐겨 찾고 있다.

한편 돼지고기에는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혈관내 콜레스테롤의 축적을 막아줌으로써 동맥경화증과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좋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성장 발육과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준다.

양돈농가 '복합호흡기 질병 및 위축성 비염' 피해 가장 커

- 본회 홈페이지 설문조사 결과 32.4% 응답

양돈농가들은 흉막폐렴 등 복합호흡기 질병과 위축성 비염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회가 지난 3월4일부터 4월2일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귀 농장은 지난 2년동안 어느 질병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셨습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15명의 응답자가 참여한 가운데 32.9%인 232명이 '흉막폐렴 등 복합호흡기 질병과 위축성 비염'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유후전신성소모성증후군, 글래서씨 병'은 23.6%인 169명이 응답했으며, '돼지유행성설사병, 전염성위장염'은 18.2%인 130명, '대장균성 설사증, 록시둡성 설사'는 9.1%인 65명, '돼지의 회장염, 돈적리'는 8.3%인 59명,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파보바이러스'는 4.8%인 34명, 기타(피부병, 돼지단독 등)는 3.6%인 26명 순으로 응답했다.

"2월에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 많았다"

지난 2월 전염성위장염(TGE)과 오제스키병은 발생하지 않은 반면,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이 집계한 가축전염병 발생 자료에 따르면, 2월중 돼지유행성설사병은 경기도 등 6개도에서 총 23건, 6,743두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건수로는 19건, 발생두수로는 5,433두가 증가했다.

지역별 발생현황을 보면 충남이 8건 2,258두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경기도가 4건 2,180두, 경북 5건 1,220두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이로서 올들어 2월까지 유행성설사병은 총 38건 12,257두로 전년 동기 누계 대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생산자 소유지에서 직접 조리·판매 위한 도축 허용

앞으로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을 대상으로 자가소비용 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소유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판매하기 위한 도축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3월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또한 지자체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생물질 등 유해성물질과 병원성미생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 결과 위반 출하농가에 대해서는

미국양돈박람회 참관단 모집

본회는 2003년 6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아이오와주 데모인에서 개최되는 세계양돈 박람회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박람회 참관단은 세계양돈박람회 참관과 함께 일리노이주의 양돈장 및 돈분처리시설 등 양돈관련 시설도 견학할 예정입니다.

- 1. 행사명 : 2003년 미국 양돈박람회 참관
- 2. 여행기간 : 2003년 6월 2일~9일(7박8일)

3. 여행경비 : 2,650,000원(왕복 항공료, 1급호텔 2인 1실, 식사비, 현지 교통편, 가이드비, 공항세 및 출국세, 전용차량비, 여행자보험(1억) 등 포함, 전시회 당일 중식, 박람회 입장료(8\$) 불포함)

- 4. 신청금액 : 30만원
- 5. 신청기한 : 2003년 4월 30일까지
- 6. 문의처 : 총무팀 김현진(02-571-9751)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휴약기간을 고려해 최대 60일이내로 출하를 제한하는 한편, 특별관리 농가로 지정해 출하가축 위생상태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등과 제휴 인슐린·인터페론 등 고가의 치료용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도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질전환 복제돼지 오는 6월 탄생

오는 6월부터 형질전환 복제돼지가 잇달아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한 국내 업체가 지난 2월 형광유전자가 도입된 체세포 복제 수정란을 대리모 돼지에게 첫 이식, 초음파 진단을 통해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고 4월9일 밝혔다.

이 업체는 핵이식·형질전환 복제기술 등을 바탕으로 사람에게 이식할 장기를 생산할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연구하는 한편, 제약사

방역본부, 방역차량 50대 인도식 거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상임본부장 정영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위해 도본부와 출장소에 코란도 밴 등 방역차량 50대를 지원했다.

방역본부는 4월11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쌍용자동차 출고장에서 상임본부장과 방역요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차량 인도식을 거행하고, 양축농가를 위한 본격적인 방역 활동에 나섰다. **양돈**

